

안동권씨 경주종친회 화수총회 성황리 개최

경주종친회 화수총회가 5월 10일 10시 경주 강동면 왕신리에 위치한 운곡서원에서 250여 명의 종친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혁만 사무국장의 사회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주요 인사로는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박병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 권오신 좌원공파회장 및 운곡서원운영위원장, 권병호 동서발전사장(전 국회의원), 권형완 대중회 사무총장 직무대리, 권만택 전 경주종친회 회장 및 홍감문중 대표, 권오길 전 경주종친회장, 권영길 전 경주종친회장, 권진택 운곡서원 유사, 권상택 두동문중 대표, 권용원 국당문중 주순, 권영걸 입실문중 대표, 권영두 구길문중 유사, 권경택 평리문중 대표, 권혁무 월산문중 대표, 권순가 다산문중 대표, 권택장 두류문중 판구미 주순, 권오현 경주장년회 회장, 권경택 경주청년회 회장, 권용구 안강청년회 회장, 권오필 영일 사곡문중 대표, 권의호 울산종친회 회장, 권혁성 울산향교 전교, 권혁한 전 울산종친회 사무처장, 권지술 울산종친회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주요 단체로는 경주청년회, 안강청년회, 경주장년회, 향일회, 국당문중, 다산문중(영일사곡문중), 월산동산문중, 두동문중, 두류문중, 홍감문중, 구길문중, 입실문중, 평리문중 등 13개 단체가 참가하였다. 특히 경주청년회, 안강청년회, 경주장년회, 향일회 회원들은 부침개를 부치는 등 맛있게 음식을 마련하여 참석자들에게 배달해 주는 정성을 아끼지 않았다.

식전행사로는 권정 계림국악예술원 원장 등이 출연하여 가야금과 해금 등을 켜며 흥겨운 노래로 분위기를 띄웠다.

권혁웅 회장은 인사말에서 “원근 각지에서 오늘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외의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 녹음방송차 출을 주는 계절에 산세 좋은 우리 권문의 성지 운곡서원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문중 이야기, 집안 자랑, 시집살이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며 화전가도 부르며 준비한 놀이를 노소동락으로 하루를 재미나게 보내시기 바라며 일가라는 인연의 소중함을 몸과 마음으로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안동권문의 소중한 가치와 전통이 대대손손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조상의 음덕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우리 자손들은 음수사원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고 조상에 대한 감사함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되시고 이번 화수회를 통하여 권문의 발전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고 말했다.

권오신 좌원공파총회 회장은 격려사에서 320여 개의 성지 중에서 신라성이 70%를 차지하는데 우리 안동권씨가 신라성의 본고장인 경주에서 4성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운곡서원을 중심으로 화수회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국적으로 화수회가 80여 곳이 있었는데 지금은 반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경주는 성황리에 잔치를 벌이고 있다. 운곡서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병준 경상북도의회 의장,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 박병훈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상임고문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문중에서 운곡서원을 가득 채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권병호 동서발전 사장은 안동권씨로 태어난 것을



권혁웅 회장



권혁웅 회장(가운데)과 공로패 수상자들



문중별로 옷놀이 시합을 펼치고 있다.



권정 계림국악예술원 원장과 단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국회의원과 구청장과 사장을 하고 있다. 안동권문에 누가 되지 않게 정직하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생활하겠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병준 도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먼저 총회를 축하한다. 어제 하루종일 비가 와서 오늘 유서깊은 장소에서 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날씨가 좋아 다행이다. 야외 행사에 가장 좋은 날씨인 것 같다. 행사를 준비해 주신 권혁웅 회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하다. 권오신 회장님처럼 문중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 앞에 선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 서로 교류하고 화합하면서 하루 즐겁게 보내시길 바란다. 운곡서원 도로 4차선 설계가 끝났는데 약 500억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대로라면 운곡서원 접근성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보다 명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동협 경주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고려 개국공신 권형 선생의 일이 깃든 운곡서원에서 개최된 화수총회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문중이 화합하고 평안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축전을 통해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뿌리를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노력에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축전에서 운곡서원은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가문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왔다. 소중한 배움터이자 우리 마음의 정신적 구심점이라고 말하며 화수총회를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권혁웅 회장은 그간 종친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우수 축친, 권진택 운곡서원 운영위원회 유사, 권기백 경주종친회 운영위원, 권태석 경주장년회 사무국장, 권택전 안강청년회 회장, 권기혁 경주청년회 회장에게 공로패를 표창했다.

다음은 초창가수 서아리씨의 노래가락에 맞춰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며 흥에 겨워 어깨를 들썩였다. 아울러 각 문중별로 옷놀이 시합과 노래자랑을 펼쳤다. 주회측은 간간히 행운권 추첨을 이어갔다. 또한 기념 타월과 옛 선조들이 불렀다는 화수가를 책자로 만들어 배포했다.

권상렬 전 경주청년회 회장은 경주종친회가 다른 지역종친회보다 젊은층이 많은 것은 문중별로 집성촌을 이뤄 살다보니 공감대가 형성되어 세대교체가 잘 되기 때문이다. 경주는 50대 후반이 되면 장년회로 넘어간다. 60대와 30대가 회의를 같이 하지 않고, 세대로 모임을 활성화하고 있다. 이 점이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권형완 편집국장

600년 유학정신 되살린다 안동권씨 의성 입향조 ‘행정 권식 선생’ 유허지 복원 착수

지신 고유제로 복원 신호탄… 은행나무와 행단 재건, 유교문화 상징 공간으로 재탄생



행정 권식 선생 후손들이 지신 고유제 봉행 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조선 전기의 유학자이자 안동권씨 의성 입향조로 널리 알려진 행정 권식(杏亭 權軾) 선생의 유허지가 600여 년의 세월을 넘어 복원된다. 오랜 시간 잊혀졌던 유학정신의 상징이 다시금 숨결을 되우는 역사적 순간이다.

최근 경북 의성군 사촌리에서는 선생의 유허지를 되살리는 복원사업의 첫 단계로, 터에 깃든 혼을 깨우는 지신 고유제가 봉행됐다. 의성군과 안동권씨 후손, 지역 유림이 한마음으로 참여한 이 행사는, 단순한 복원 그 이상으로 지역 정체성과 역사 의식을 되살리는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이번 복원사업은 은행나무 세 그루의 재식재, 학문 수련 공간인 ‘행단(杏壇)’의 복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권식 선생은 1450년대 단종의 폐위와 죽음을 계기로 벼슬을 버리고 사촌리에 낙향, 직접 은행나무를 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교육 공간을 조성했다.

이곳은 유교의 종조인 공자가 제자들을 가르친 ‘국부의 숲’에서 유래한 이름을 따 ‘행단’이라 불렀다.

선생은 “공자의 현승은 따르지 못했지만, 그 뜻을 이어 은행나무를 심어 후손이 가꾸게 하겠다”고 시를 남기며 후대의 교육과 덕성을 기원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병자호란, 한국전쟁 등 격동의 세월 속에서 이 행단과 은행나무는 모두 소실되고 말았다.

이후 후손들과 지역 사회는 오랜 기간 복원을 염원해왔으며, 이번 사업은 그 숙원을 현실로 만드는 첫 걸음이다.

복원 대상에는 △은행나무 3그루 재식재 △행단 원형 복원 △유허비 및 안내판 정비 △역사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 등이 포함되며, 향후에는 △유교 문화 체험 공간 조성 △정

소년 유학 교육 프로그램 △지역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권식 선생은 1423년(세종 5년) 안동에서 태어나, 1452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454년 장원향교 교수로 재직하며 백목동규를 기준으로 엄정한 유학 교육을 실천했다.1457년 단종이 폐위된 후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낙향하여 평생을 사촌리에서 학문과 교육에 헌신했다. 그의 후손으로는 진사 권흥조, 문과에 급제한 권경조, 별제를 지낸 권순조, 조선 후기 장기현감을 지낸 권희순, 이조판서에 추증된 권수경 등 인물이 잇따라 배출되었다.

1860년 사림의 공의로 건립된 기천리사는 일제강점기 방화로 소실됐지만, 1934년 후손들에 의해 재건된 기천정사(의성군 문화유산 제38호)와 유허비를 통해 그 맥맥이 이어지고 있다.

권식 선생의 후손들은 “이번 복원이 단순한 기념이 아닌, 선조의 유학정신과 교육 이념을 오늘날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 사회와 후손들이 함께 이 정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성군 관계자는 “행정 권식 선생 유허지 복원은 유교 문화 자산의 보존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 정체성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교육,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복원사업은 유교의 이상과 교육정신을 계승하는 문화적 발판이자, 지역민과 후손들의 뜻이 모인 장대한 공동 기억의 복원이다. 다시 살아날 행단의 은행나무는 단지 나무가 아닌, 600년 유학정신의 상징으로서 새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권병건 아시아경제 취재국장



지신 고유제를 봉행 하는모습이다.



건넰었다.

계속된 총회는 경과보고, 감사보고에 이어 부의 안건을 상정하여 지난해 결산 및 올해 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고, 마지막 제25대 임원선임 결과 보고에서는 현 종친회장과 감사 2인의 유임이 결정되었음을 보고한 후 연임하는 송산 영현회장에게 축하 꽃다발을 전하며 중책을 맡아준데 대한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송산 회장은 유임 소감 인사에서 앞으로 2년은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종친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진 정기총회는 부녀회 합창단과 함께 권문의

노래를 제창한 후 유산 중원 원로회장의 선창에 따라 만세삼창을 부른 후 1부 행사를 모두 마쳤다. 식사와 함께 시작된 2부 행사는 태식 부회장의 사회로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으로 흥을 돋우며 축친들 간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성기획사 소속 김진희 가수의 노래를 시작으로 여러 종친이 노래하고 부상을 받았으며, 경품 1등 상품인 43인치 컬러 TV 당첨자가 발표되자 장내에 환호성이 터졌다. 이번 총회는 세월사 권석근 회장이 기념타월을 기증하고 권영창 대총회장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축하 화환을 보내주어 정기총회가 더욱 빛났다.

〈부산사무국장 권채영〉

부산광역시종친회 제49차 정기총회 개최



권영현 회장

부산광역시종친회(회장 권영현)에서는 지난 5월 24일 10시30분, 부산진구 전포동 부산직심사회관 대강당에서 제4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부산 종친 400여 명이 운집한 이날 총회는 송계 길상 고문을 비롯한 종친회 전임

회장님들과 원로 어르신들, 권문의 사위인 서병수 전 부산시장, 머느리 김희정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김석조 경주김씨 부산종친회장, 권병욱 함천종친회장, 권영범 산청종친회장 등 유관 종친회는 물론, 대중회 갑현 종보편집위원장과 기보 총무국장 등등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10시부터 본 행사에 앞서 진행된 식전 행사는 부녀회 권옥태 고문의 하모니카 연주와 권태식 부회

장이 이끄는 총렬 색소폰 합주단의 멋진 공연이 총회 분위기를 들뜨게 하였다. 이후 권영인 수석부회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회기 입장부터 장내가 한껏 고무된 가운데 국민의례, 시조님에 대한 망배, 정수 부회장의 종시 낭독에 이어 참석인사 소개와 공로패, 장학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산 영현 부산종친회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2년 임기를 지내는 동안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젊은 세대를 비롯한 새로운 회원 영입이 없다는 점”이라며 참석한 종친의 자녀, 손자녀의 참여를 설득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하였으며, 송암 성용 명예회장은 젊은이들의 관심밖에 있는 종친회를 가문과 집안에 대한 추억과 애정을 가진 우리 세대부터 힘을 모아 쇄퇴해 가는 종친회 부활에 앞장서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사)한국곡성씨연합 총재인 송계 길상 고문은 내빈으로 오신 서병수 전 부산시장, 김희정 국회의원, 경주김씨종친회 김석조 회장에 감사 인사를 전한 다음, 일가끼리 정을 나누는 종친회를 더욱 사랑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집행부의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대중회 수석부회장인 원광 영호 고문은 6월 20일 11시 대중회 정기총회가 안동(능동재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며, 대중회에 길상 고문, 수석부회장인 저, 성용·영현 상임위원, 상술 여성분과위원장 등 여러 부산 임원을 바쳐 많은 참석을 바라는 요지의 인사말을 전하였다. 이밖에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김희정 국회의원 그리고 김석조 경주김씨 부산종친회장도 권문과의 이력지런 인연을 소개하며 우리 정기총회를 축하하는 인사말을